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A Study of Oral Traditions on Tangun

저자 서영대
(Authors) Suh Young-Dae

출처 [단군학연구 \(21\)](#), 2009.11, 135-169(35 pages)
(Source) [Journal of Dangun Studies \(21\)](#), 2009.11, 135-169(35 pages)

발행처 [단군학회](#)
(Publisher)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1458515>

APA Style 서영대 (2009).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21), 135-169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9/12 10: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서영대**

I. 머리말

III. 북한의 단군설화 자료

II. 단군 관련 구전자료

IV. 자료의 종합적 검토-맺음말을 대신하여

I. 머리말

지금까지 단군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에 의거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단군에 관해서는 구전자료도 있다. 즉 근대 이후 설화를 채록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단군 관련 전승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이들 구전자료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래된 자료일수록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역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구전자료는 문헌자료에 비해 시기가 떨어진다는 점만 아니라 구전자료에는 구술자의 주관적 생각이 반영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그렇지만 지금은 비록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자료라 하더라도 이전에는 구전자료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구전자료가 있었기에 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단군 인식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헌자료를 기록하고 향유하는 것이 지식인들인데 비해 구전자료는 민중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구전자료는 단군 인식의 확산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단군 인식을 살펴볼 수는 단서가 될 수 있다.¹⁾ 이런 의미에서 단군 관련 구전자료에 대해 한번쯤 주목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설화자료집에 산견되는 단군 관련 설화들을 모아서 이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고, 나아가 문헌자료와의 관련 양상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학계에서 제시한 단군 관련 설화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구전자료를 취급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탓에 논리 전개에 무리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가 질정을 바란다.

1) 문헌자료의 표현 수단인 한자가 표의문자라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雪巖 秋鵬(1651~1706)의 『妙香山誌』(『雪巖雜著』 권1, 『韓國佛教全書』 9, 동국대출판부, 1988, 264쪽)에 수록된 단군신화에 의하면, 단군은 桓熊과 白虎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환웅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서와 같이 ‘桓雄’이 아니라 ‘桓熊’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환웅은 곰이라는 인상을 준다. 『妙香山誌』가 전하려는 것이 단군은 곰과 호랑이의 아들이란 사실이라면, 桓熊이란 표기는 환웅이 이름인 동시에 곰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표의문자의 장점을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어인 환웅을 桓熊으로 표기했다면, 이러한 표기는 환웅이 곰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 된다.

II. 단군 관련 구전자료

단군에 관한 구전설화의 채집은 일제시기인 192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도 1930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손진태(孫晉泰; 1900~?)의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에 수록된 <삿갓의 유래(玄冠の由來)>가 그것이다.²⁾ 해방 이후에도 단군 관련 설화는 간간히 채록되어, 1979~1988년에 걸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몇몇 자료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채집된 자료는 비록 많은 편수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군의 출생

1-① <단군(檀君)>

큰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인데요. 단군 이야기를 하겠다.

옛날에 옛적에 사람이 밥 낭구서 밥 따서 먹구 옷 낭구서 옷을 따서 입구 살던 시절에 말이에요. 그 시절에 단군 하라부지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 올시다. 단군 하라부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려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인간이 하나 하늘서 떨어졌지요.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떨어져서 가지구 어디다가 의지해야(어떤 상대와 결합해서) 인간을 낳는지 몰랐어요. 그 양반이 어떻게 생겼나쁜 이 양반의 신(남근)이 컸었대요. 여순 땃 발이나 났대요. 남정네들 그거 큰 거 보고 예순 땃 발 수죄기 좇겠다 왜 그런말 하지 않아요. 그런말 생긴 건 이 양반의 그것이 커서 생긴 말이래요. 어쨌던 이 양반의 그거이 컸는데 어디다 지점을 해야 인간을 탄생시키겠다 하구 예순 땃 발 수죄기 좇을 내들렀대요. 내두르는데 호랑이도 마다 돼지도

2) 孫晉泰, 『朝鮮民譚集』, 郷土研究社, 東京, 1930, 38~39쪽 : 최인학 역, 『조선 설화집』, 민속원, 2009, 52쪽.

마다 사슴도 마다 온갖 짐성이 다 마다드래요. 그런데 꿈은 굴속에 있다가 그 신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난 거이 단군하라부지래요. 그리고 그담에 여우가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여우가 난 거이 기자(箕子)래요. 그래서 단군 천년 기자 천이백년(檀君千年箕子千二千年)이라구 하닌 거여요.

꿈이 난 거는 남자구 여우가 난 거는 여자래요. 남자는 꿈이 났기 때문에 미련하대요. 왜 꿈은 미련한 거라구 않그래요?

여우는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우가 난 여자는 깜찍하구 여간만 여우질을 잘하지 않해요? 그래서 남자는 미련하구 여자는 깜찍하게 생겼다닌 거여요.

여우는 그것이 무척 컸었대요. 인간이 나올 적에는 거기서 서서 어적어적 걸어서 나왔대요.³⁾

이 자료는 1987년⁴⁾ 2월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 지암리의 장보패(張寶貝)가 구술한 것을 임석재(任皙宰; 1903~1998)가 채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어떤 존재가 인간을 번식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성기가 너무 커서 마땅한 짝을 찾을 수가 없는데, 꿈이 이를 상대하여 단군을 낳았고, 여우가 상대하여 기자를 낳았으며, 이로부터 인간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꿈 여인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은 『삼국유사』 이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헌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꿈에서 인간으로 변신한 여인이 아니라 꿈 자체와 혼인했다는 점, 꿈과 혼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성기가 너무 커서)가 언급된 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기자 관련 부분이다. 기자(箕子)는 여러 문헌들에서 중국의 성인인데, 조선으로 망명하여 단군의 뒤를

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Ⅲ·평안남도편·황해도편, 평민사, 1989, 230~231쪽.

4)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황해도 설화가 1987년에 채록되었다는 것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임석재, 위의 책 황해도편의 「책 머리에」 211쪽에 의하면 이 책에 수록된 1970년 이후의 설화는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로부터 채록한 것이라 한다.

이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 소중화 의식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기자는 꿈에 비해 무게가 많이 떨어지는 여우의 자식이며, 단군의 이복동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기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다. 따라서 기자의 위상은 문헌자료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자동래설에 근거한 소중화 의식은 일종의 자존의식이긴 하지만, 자주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기자는 단군의 아우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자주적이다. 한문 문헌이 지식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한다면, 구전설화는 문자 해독력이 없는 민중까지 향유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인층에 비해 민간의 기자인식이 더 자주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단군의 부인

2-① <단군 이야기(<檀君의話>)>

지금부터 몇 천 년 전 옛날에, 조선에 단군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상대가 되는 여인이 한 사람 필요해서, 많은 짐승들을 모아서 한 동굴에 넣고 가장 오랫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자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짐승들도 모두 기뻐하며 동굴에 모여 기어들어 갔지만, 날짜가 경과함에 따라 배가 고파서 차츰 동굴에서 나왔고, 가장 최후에는 사자와 곰 두 마리만 남아서 버텼다. 그러나 사자도 마침내 저서 나오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곰이 기려(綺麗)한 여자가 되어 단군과 살았다.⁵⁾

2-② <승안리 용추계곡(升安里 龍湫溪谷)에 얽힌 이야기>

5) 佐佐木五郎, 『平壤附近の傳説と昔話』 『旅と傳説』 14-9(通卷 165), 三元社, 東京, 1941.

옛날 우리나라의 시조이신 단군께서 나라를 처음으로 열었을 때 그에게는 중국의 천자인 친형이 있었다. 그 형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온갖 동식물이 살기 좋고, 오곡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를 탐내어 동생인 단군을 시기하고 자주 괴롭혔으며 심지어 억지로 한반도를 탐하려 하였다.

한편 단군에게는 용녀(龍女)와 웅녀(熊女)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시기하는 중국 천자를 보고 용녀가 크게 화를 내어 “이 땅은 원래 우리가 개척한 땅인데 어찌 넘보려 하십니까? 굳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신다면 재주와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겨워서 승리한 자가 차지하도록 합시다”하고 중국 천자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리하여 용녀는 아름답고 기름진 옥토인 한반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재주를 동원하여 비를 억수로 뿌리게 했다.

하루 이틀을 지나 계속하여 비가 내리자 큰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에 놀란 중국 천자는 용녀의 재주에 그만 주눅이 들어 욕심을 버리고 한반도를 넘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자 용녀도 어쩔 수 없었다.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 그야말로 이수라장이 되었다. 할 수 없이 단군은 가족과 신하들과 함께 돌배를 타고 평양에서 춘천까지 피난을 왔다. 그러나 춘천에 도착하자 신하들이 하나 둘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다시 배를 돌려 단군과 그의 가족들은 이곳 승안리(升安里)로 피난을 와 지금의 미륵바위가 있는 곳에 마침내 멈추니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 모든 곡물이 다 떠내려가 없어지고 갖가지 전염병이 나돌아 단군과 그의 가족들도 승안리 미륵바위 근처에서 모두 죽어갔다.

단군과 그의 가족, 그리고 신하들을 태우고 왔던 그 돌배는 소·쥐·닭 등의 형상을 한 12지 신상을 한 형상이었는데 결국 승안리 용추계곡(龍湫溪谷)에서 단군과 그의 가족과 함께 세월에 묻혀져 갔다.

그리하여 단군이 묻히신 곳이 바로 이곳이며 한반도의 가장 중심인 곳이라고 한다.

6.25동란 이후 불구의 몸을 이끌고 깊은 산속에서 1000일 기도를 드리면서 마침내 단군이 묻히신 곳을 신의 계시에 의해 찾아냈다는 박옥자씨는 그 후 용추계곡에 와 기도를 드리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옛날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용추계곡의 미륵바위는 개울 가운데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고,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별로 특별한 바위가 아니었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박옥자씨의 말대로 그곳을 파 돌배를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1971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어 소바위·쥐바위·미륵바위를 끌어 올려내고 다음으로 호랑이

바위를 끄집어내려는데 바위가 너무 커 역부족이었다. 이에 공사를 맡고 있던 인부가 폭약을 사용하여 공사를 했다가 그 밖의 모든 유적들이 크게 손상이 나 아쉽게도 미륵바위와 쥐바위·소바위의 세 바위만이 오늘까지 남아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 세 바위는 그 근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석질로 그 모양도 이름에 걸맞게 형상을 띄고 있어 이 전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⁶⁾

자료 2-①은 일제시기에 사사키 코로우(佐佐木五郎)란 일본인이 평양 부근에서 채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이 인내 끝에 꿈에서 변신한 여성과 혼인했다고 한다. 단군의 부인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서하하백(西河河伯)의 딸이라 했다.⁷⁾ 이밖에도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와 비교했을 때, 환웅이 아니라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한 점, 꿈 여인과 환웅이 아니라 꿈 여인과 단군이 혼인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꿈 여인은 단군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다. 또 꿈과 인내심을 겨룬 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라 한 점도 특이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색다른 단군전승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전승은 권근(權近; 1352~1409)이 1396년(조선 태조 5)에 지은 『응제시(應製詩)』의 한 편인 『시고개 벽동이주(始古開關東夷主)』란 시에서 처음 등장하며, 이후 조선시대를 통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다.⁸⁾ 따라서 이 설화는 단군신화의 여러 유형 가운데 『응제시』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에서는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으므로, 단군의 어머니인 꿈 여인이 개재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꿈 여

6) 가평군지편찬위원회, 『가평군지』, 가평군, 1991, 1141~1142쪽.

7) 『三國遺事』 권1, 紀異1, 高句麗; “壇君紀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妻”

8)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 서울대출판부, 1994, 55~57쪽.

인이 단군의 아내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료 2-②는 경기도 가평군 승안리 용추계곡(龍湫溪谷) 관련 설화이다. 이에 의하면 단군의 친형은 중국의 천자이고, 단군의 부인으로는 용녀(龍女)와 웅녀(熊女)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 천자가 우리나라를 탐내자 용녀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비를 뿌렸는데, 그것이 지나쳐 나라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단군은 가족과 함께 돌배를 타고 평양에서 춘천까지 피란을 왔으나,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군 일가족이 타고 온 돌배가 변했다는 쥐바위·소바위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단군에게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 웅녀, 즉 곰 여인은 자료 2-①에도 보이는 바이지만, 용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다. 또 중국 천자는 단군의 친형이라는 것 역시 새롭다.

새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군시대에 큰 홍수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천도를 했다는 기록은 선조~인조 연간의 인물인 조여적(趙汝籍)의 『청학집(靑鶴集)』에도 보인다. 즉 대홍수로 말미암아 패수가 넘치고 평양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단군의 네 왕자가 구월산에 올라 상지(相地)를 해서 당장리(唐莊里)로 도읍을 옮겼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이 설화는 『청학집』의 내용과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즉 홍수 때문에 옮겨간 곳도 구월산 당장리가 아니라 춘천이며, 홍수의 원인도 중국 천자의 야욕을 꺾으려는 용녀의 도술 때문이다. 또 단군과 그 일족도 굶주림과 전염병에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이 설화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중국 천자에 대한 적대감이다.

9) 『揆園史話·靑鶴集』, 아세아문화사, 1976, 164쪽.

그렇다고 할 때 이것 역시 기사를 여우의 자식이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군 관련 구전설화가 상당히 민족적이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단군이 한 일들

3-① <삿갓의 유래(玄笠の由來)>

인간이 아직 의복을 입는 것을 몰랐던 옛날엔 싸움이 많았다. 그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군은 백성에게 명했다. “흙으로 모자를 만들어 쓰라. 만일 그 모자를 찢거나 부수는 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의 삿갓은 옛날 흙으로 만든 모자로부터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¹⁰⁾

3-② <마니산 전설>

그 마니산이라는 것이 그게 단군이 쌓았는데, 게 단군제가 있잖아? 단군 제사 지내는 그래 단군이 그거 쌓았는데 그의 누이가 그 만경대하고, 고 옆에 쌓는데 쌓다가 관쳤디야, 아 인제 고건 작지, 좀. [청중: 손으로 쌓는 거예요?] 응, 아 그 마니산 모양으루, 거기 전엔 단군산성이 더 많은 힘도 많거니와 그거 다 어떻게 정일, 언제 다 쌓는지 근데 그 단군이 흙을 쌓고 그제 그래서인지 요즘엔 그 단군이 쌓았다고 해서 봉화불은 거기서 자꾸 허니까, 여기로 자꾸 으응, 끄 시방 등산 경기나 이 참 서울 사람이라두 거기 귀경을 허구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깐 ...¹¹⁾

3-③ <마니산의 유래>

화도(華道)에 가며는 만리산(萬里山)인데 마니산이라고 그러더군요. 그 게 만리서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지금 여기 것으로 만리서 떠 들어왔다고 만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자: 네, 그게 어디서 떠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만리서 떠 들어와서 만리산이라 전설이 그래요. 단군 할아버지가 거기서 아들 삼 형제를 뵈시고 삼형(랑)산이라고 쌓은 성이 그래요. 그 돌이 거기 있는 돌이 아네요. 어디서 갖다 쌓는지 참 반듯반듯하게 꼭대기에 올라 가면 거기에 성(城)이 커다랗게 지금 반듯하게 쌓여진 게 고대로 있는 걸

10) 孫晉泰, 『朝鮮民譚集』, 郷土研究社, 東京, 1930, 38~39쪽; 최인학 역,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52쪽.

11)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411~412쪽.

원래는 납작한 돌로 잘 쌓기 때문예요. 거 뭐 더러 파괴는 됐지만 그렇게 파괴는 안 됐고 이런 돌로 쌓으면 뭐 저 다 없어졌죠. 거, 참 이렇게 납작한 돌로 쌓죠. 이 근방에는 그런 돌이 여기 있는 돌이 아니예요. 어디서 먼 데서 가져온 돌이죠. 근방의 돌이 아니예요.¹²⁾

3-④ <단군 아들 삼 형제 전설>

단군께서 강화 와 있을 적에. [조사자: 예, 그 말씀 좀.] 있을 적에, 아들을 삼 형제를 아— 형제, 아— 삼 형제야, [형제인지, 삼형제인지 잠깐 혼동이 되었으나 삼 형제라고 했다.] 삼형제 분을 낳았는데, 삼 형제 분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큰 아드님은 부루, 부루고. [조사자: 예—.] 둘째 아드님이 아마, 일찍 아마 돌아— 작고했나 봐. 그래, 그 작은 아드님이 원이 부여, 부여고. 부여란 분이 만주를 가서 통솔했지요. [조사자: 예.] 거가 정치를 허고 지금 부루 그 낭반은 단군이 그 정치를 하고, 인제 그럴 제, 평양에 도읍혈 제, 큰 아드님을 주고.

그리고 강화에 그 양반이 와 계실 적에 저 하점면 상방리 거그 가 거스기가 있잖우. 거스기 이— 마니산. 마니산에 가 그 때 한참 가무니까. 게다가 단을 모시고 아드님 삼 형제를 데리구가설랑 단을 모으고서 기우제를 지낸 자리여. 그래 거그가 ‘개천절이라’ 그러는 거지.¹³⁾

3-⑤ <묘향산 천주석(天柱石)>

인도승(引導僧) 하나가 설명하기를 “저 천주석(天柱石)은 단군굴(檀君窟)에 올라스면 바루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때 단군님께옵서 굴에서 화살을 쏘시면 그 화살은 십리허(十里許)에 날라 저 바위를 맞치고, 여력(餘力)으로 그 화살은 뒷걸음질을 치며 다시 단군님께로 날라왔답니다. 그러기에 단군님께서는 화살 하나로 무예(武藝)를 강습(講習)하셨지요”하고 자기가 눈으로 본듯이 역역히 지점(指點)하며 자못 흥분한 태도다.¹⁴⁾

3-⑥ <장갑(藏甲)바위>

신천읍(信川邑)에서 서쪽으로 한 오십리 쯤 가면 구월산이 나타나는데 이 구월산의 사황봉(思皇峰)이라는 봉의 북쪽에 판자문같이 된 바위 절벽이 있다.

옛날 단군이 여기에 내려와서 지내다가 등산할 적에는 평시에 쓰시던 칼과 갑옷을 이 석문(石門) 안에다 감추어 넣어두고 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12)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707쪽.

13)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872~873쪽.

14) 玄鎮健, 『檀君聖蹟巡禮』, 藝文閣, 1948, 26쪽.(이 책은 『國學研究』 7, 국학연구소, 2002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이 바위를 장갑(藏甲)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연전(年前) 어떤 일본 사람이 그 검과 갑옷을 꺼내 보겠다고 절벽을 깨트렸는데 허비용(虛費用)만 많이 들이고 말았다.¹⁵⁾

자료 3-①은 1923년 8월, 함흥의 김호영(金浩榮)이 구술한 것을 손진태가 채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샷갓은 단군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모자를 쓰도록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단군이 갓을 쓰도록 했다는 전승은 문헌자료에도 보인다. 1705년(숙종 31)에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지은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의 「단군조선」조가 그것인데, 여기서 단군 원년 무진(戊辰)에 단군은 백성들에게 머리를 묶고 갓을 쓰는 법[編髮蓋首]을 가르쳤다고 했고, 또 군신·남여·음식·거처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¹⁶⁾ 『동국역대총목』에서는 이를 통해 단군이 문명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짐작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그것을 전쟁 방지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설화 자료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자료 3-②에서 3-④까지는 1981년에 강화도에서 채록한 것이다. 즉 3-②는 강화군 화도면 내리 2리에서 이강옥이 구술한 것을 성기열과 정기호가 조사한 것이고, 3-③은 강화군 양도면 삼흥 2리에서 윤태선이 구술한 것을 성기열과 김세훈이 채록한 것이며, 3-④는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의 김재식이 구술한 것을 조동일 등이 채록한 것이다. 이들 설화는 모두 강화도에 위치한 참성단과 삼랑성을 단군이 만들었음을 전하는 것이다. 참성단과 삼랑성을 단군이 쌓았다는 사실은 『고

15)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황해도편, 평민사, 1989, 223쪽.

16) 檀君朝鮮 戊辰 元年 教民編髮蓋首 (君臣男女飲食居處之制 亦自此始云)(『洪萬宗全集』 상, 태학사, 1980, 209쪽).

려사』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다.¹⁷⁾ 다만 참성단을 『고려사』에서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지내던 곳이라 한 데 비해, 3-④에서는 단군이 세 아들을 데리고 기우제 지내던 곳이라 한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문헌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이들 설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급할 필요가 없겠다.

자료 3-⑤는 현진건(玄鎭健; 1900~1943)이 단군 성적 순례의 일환으로 1943년 7월 12일 묘향산 단군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현사(普賢寺)의 승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천주석은 묘향산 탁기봉(卓旗峰) 중복(中腹)에 직립한 거암(巨巖)으로, 단군이 활쏘기 연습을 할 때 과녁으로 사용했던 바위이다. 이러한 사실은 1939년경에 완성된 『영변지(寧邊志)』 고적(古蹟)조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¹⁸⁾ 그러나 여기에는 단군이 화살 하나로 무예 훈련을 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구전자료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 하겠다. 나아가 단군이 쏜 화살이 계속 되돌아 왔다고 한 점에서 구전 자료 쪽이 단군의 신성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자료 3-⑥은 1932년 12월,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의 최무길이 구술한 것을 임석재가 채록한 것이다. 이것은 구월산 사황봉에 있는 장갑바위의 지명 유래 설화로, 이러한 이름은 단군이 평소 사용하던 칼과 갑옷을 숨겨놓은 데서 유래한다고 했다. 그러나 단군이 칼과 갑옷을 감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설화로서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17) 『高麗史』 권56卷, 志10, 地理1 江華縣 ; “有摩利山[在府南 山頂有塹星壇 世傳檀君祭天壇] 傳燈山[一名三郎城 世傳檀君使三子築之]”

18) “檀君講武之臺西望卓旗峰 有天柱石 高二百丈 乃檀君講武時射的”(『韓國近代邑誌』62, 한국인문과학원, 1991, 27쪽).

4. 단군의 무덤

4-① <단군 이야기[檀君의話]>

잠시 뒤 어느 날 단군이 백마를 타고 여러 나라[諸國]를 순시하는 도중 짚신[草鞋]이 밖으로 떨어졌다. 촌민(村人)들은 그 짚신이 떨어진 곳에 무덤을 만들고 단군의 묘(廟)를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의 강동군 강동면 칠포리(漆浦里)의 규모가 큰 단군릉이다.¹⁹⁾

자료 4-①은 자료 2-①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단군묘는 단군이 여러 지방을 순시하다가 말 위에서 신발을 떨어트린 곳에 축조한 것이라 한다. 단군묘에 대한 언급은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등장한다.²⁰⁾ 그런데 단군묘의 존재는 단군이 마지막에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 모순이 된다. 산신이 되었다면 무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군묘는 단군의 시신이 묻힌 곳이 아니라, '옷과 신발을 묻은 무덤[衣履之藏]이란 인식이 등장한다.²¹⁾ 그런데 이

19) 佐佐木五郎, 『平壤附近の傳説と昔話』, 『旅と傳説』 14-9(通卷 165), 三元社, 東京, 1941.

2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5 江東縣 古跡 ; “大塚 一在縣西三里 周四百尺 諺傳檀君墓”.

그리고 단군묘에 대해서는 최근 상세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

金成煥,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金成煥, 『日帝強占期 檀君陵修築運動』, 경인문화사, 2009.

21) 단군묘가 衣履之藏이란 인식은 1900년(광무 4년) 中樞院議官 白虎燮이 고종에게 단군묘 숭봉을 건의하는 상소에 보인다(『高宗實錄』 권40, 光武 4년 1월 29일 ; “議官白虎燮疏略 : “平壤即檀君 箕子 東明王三聖人建都之地 而檀君首出 肇開鴻荒 立國併唐堯之世 寶曆享千歲之永 今其衣履之藏 在江東邑治西五里 太白山下 此既昭載於該邑志與《關西文獻錄》 而故相臣許穆所述《檀君世家》曰 : “松壤西有檀君塚, 松壤即今之江東縣”云 其爲可徵 可信 固已章章明矣)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조선 정조 때의 북학파들의 시를 선별하고 여기에 箋註를 붙인 『箋註四家詩』(柳琴 편) 가운데 李德懋(1741~1793)의 『謁崇仁殿』이란 시가 수록되어 있

설화는 이러한 인식과도 달리 단군이 신발을 떨어트린 곳이라 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이것은 '옷과 신발을 묻은 무덤'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달리 단군이 묻힌 곳은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이란 전승도 있다. 앞서 언급한 2-②의 승안리 용추계곡 설화가 그것이다. 이 자료에는 새롭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단군이 묻힌 곳에 관한 전승 역시 그러하다 하겠다.²²⁾

5. 단군의 사후

5-① <구월산(九月山)>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은 옛날, 아사달산(阿斯達山) 또는 백악산(白岳山)이라고도 하며, 그 높이는 9백 45미터나 된다고 한다.

옛날, 단군(檀君)이 묘향산(妙香山)에서 나와서 평양(平壤)에 도읍하여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기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9월 9일에 지금의 구월산으로 들어가서 신(神)으로 화하여 승천하였다고 하며, 그 때에 나이는 1천 9백 80살이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뒷날 사람이 이 산을 “구월산”이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산 꼭대기에는 단군이 등산하였다는 “단군대(檀君臺)”가 있다.²³⁾

으며, 이에 대한 箋註에 “江東縣有檀君墓 葬一隻履云”란 구절이 있다(翰南書林, 1917, 권1 19쪽). 이 전주는 朴齊永이 붙인 것이나 그가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 박제영이 1900년 이전 사람이라면, 단군묘가 衣履之藏이란 인식은 백호섭의 상소가 처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2) 단군묘에 대해서는 “麗末에 어떤 수령이 이 陵을 파보았더니 지하로부터 黃玉棺이 드러나 悚然히 발굴을 중지하였다고, 父老는 전한다”는 전승도 있고 (玄鎮健, 『檀君聖蹟巡禮』, 藝文閣, 1948, 69쪽), 일본인들이 단군묘를 발굴해 보니 벽돌로 된 묘실 내에 仙人과 神將의 벽화가 있었다는 기록(張志淵, 『韋菴文庫』 권7, 外集, 문방잡기, 檀君墓)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군묘에 대한 후일담이므로, 여기서는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3) 崔常壽,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337쪽.

5-② <당산(堂山)의 유래>

이전에 단군할아버지가 우리 백성들한테 가장 잘 했다 이기라. 참 마 잘 했는데, 여어 마 어 우리 참 박대통령맨치로(처럼) 이만침(만큼) 잘 했는 모냥인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답은 뭐 할 기 없고 그 당신(堂山神)을 모시는 기라.

당신, 당신, 돌로 가(돌을 가지고; 필자) 하거나, 그라이머(그렇잖으면) 집을 지 가(지어서; 필자) 모시거나, 그라이머(그렇지 않으면; 필자) 남(나무)에다가 말이지, 이기 절도 하고 모시거나, 이래 인자 거기(그게) 당신이라. 단군할아버지의 그 신이라. 거기 무슨 뭐 아직 그걸 몰라 딴 사람들은 뭐….

단군할아버지의 신인데, 그래서 ‘아이구 이거, 단군할아버지의 신을 모시든 단군할아버지도 할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암당을 또 모시야 된다, 암당을. 그 할매당을 모시야 된다.’ 그래 암당 수당 카는 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당산 카는 거인데, 당산을 뜯어본 뭇이 안 되고 되고 하는기 있거등.

인자 과학이 발달이 되만 단군할아버지도 인간이 절도 받아 자식이이꺼네 뜯어도 아무 무방합니다. [칭중: 웃음.] 예, 관계없어요. 예, 세태가 달라지거등. [칭중: 우리도 뜯어봤아, 우리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군할아버지의, 저 당신, 당산이라 카는 기 당산이 아이고 단군의 신….²⁴⁾

자료 5-①은 황해도 은율의 김종호가 구술한 것을 최상수가 채록·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단군이 마지막에 구월산 산신이 되었다는 것과 구월산 정상에는 단군이 선선이 되어 올라갔다는 단군대가 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화로서는 스토리도 빈약하다.

자료 5-②는 1981년에 경남 밀양읍의 우지원(55세)이 구술한 것을 류종목 등이 채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단군은 사후 마을의 당산신으로 모셔졌으며, 당산신으로 모시는 것은 단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점은 단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스토리 전개가 없어 설화로서는 불완전한 것이라 하겠다.

24)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밀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62쪽.

6. 단군의 자손

6-① <단군의 일곱째 아들이 살았던 거북바위>

거북바위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이고, 이거이 서울에서 아마 그 단군 신봉을 하는 지금 하나의 종교 단체라고 봐 집니다마는 거그에서 교수들하고 보살들하고 몇 분이 내려와 가지고 거그서 잠까지 자면서 그런 것을 연구했다고 그것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 줄기를 듣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거북바위에서 단군할아버지의 일곱째 아드님이 거그서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도술이라 할까 모든 것을 문하생들을 양성을 했다, 이런 줄기가 나오는데, 그 시점이 그 거북바위의 줄기가 이 문덕 이 봉덕 안 풀착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그 정기로서 지방 풍성한 수확을 올리면서 부자들이 배출하여 왕성히 살고 있다, 이러한 여론도 남기고 가셨습니디마는. 가끔 그분들이 와갖고 들려서 그러한 사례를 연구를 하고 또한 앞으로도 빛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그에서 그 줄기로 그 낭반들이 이 얘기 한 것은 가보며는 실재로 바위는 있습니다, 거북바위.

거북같이 생긴 바위는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사기점, 한나의 도자기 맨드는 옛날 옹기 사기점이 이 꼬랑에 두 간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 간데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형태는 없어졌고 발굴을 하게 되며는 땅 속에서 인자 그러한 그 옹기 그럭이나 사기 그럭들이 모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며는 분명히 과거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고려자기같이 그런 비슷한 그럭을 맨들었는가 그런 기술도 갖고 와서 맨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멩칭(명칭)이 또한 부곡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기산에 가서 거북바위 그 밑에 가서, 그것이 부곡인데 부곡이란 부자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마 부(釜)자가 될 것인데 부자 부(富)자로 중간에 고쳐 불고 골차기 곡(谷)자 하고, 사방 부자 부자의 부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어리는 자세헌 것은 모르겠습니다. 잠 잊어불고 들은 대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²⁵⁾

자료 6-①은 1985년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말치부락의 염동우(58세)로부터 최덕원이 듣고 옮긴 것이다. 이것은 보성에는 단군의

25)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전라남도 보성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734~735쪽.

일곱째 아들이 도술을 부리고 문하생들을 가르치던 거북바위가 있음을 전하고 있다.²⁶⁾ 단군의 아들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즉 단군이 서하하백(西河河伯)의 딸과 관계하여 낳았다는 부루(夫妻)가 있고,²⁷⁾ 또 고구려 동명왕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란 기록도 있다.²⁸⁾ 그러나 후대의 문헌에는 더욱 많은 수의 단군 아들이 문헌에 등장한다. 『고려사』에서는 삼랑성을 쌓은 것을 단군의 세 아들이라 했다. 그러다가 『청학집』으로 오면 아들이 네 명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름(夫妻·夫蘇·夫虞·夫餘)까지 제시된다.²⁹⁾ 그러나 일곱째 아들이란 이 자료에 처음 보인다. 그리고 그가 보성지역까지 내려가 도술을 부리고 문하생을 양성했다는 것도 처음 보는 전승이다.³⁰⁾

26) 이 설화가 채록된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에서는 25기의 지식묘가 확인된 바 있다(이영문, 「전라남도」, 『한국 지식묘유적 종합조사·연구』Ⅱ, 문화재청·서울대학교 박물관, 1999, 981쪽).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북바위도 지식묘의 蓋石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서해문화연구원의 유태용 원장으로 힌트를 얻은 것이다.

27) 『三國遺事』 권1, 高句麗조 所引 『壇君記』.

28) 『三國遺事』 권1, 王曆.

29) 『揆園史話·青鶴集』, 아세아문화사, 1976, 164쪽.

30) 玄鎮健, 『檀君聖蹟巡禮』 26~28쪽에는 <假檀君窟>에 관한 전승이 수록되어 있다. 즉 “잡목 숲에 가린 급경사의 앞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岩上에서 小憩 하었는데 그 때 引導僧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賓峰의 동편으로 얼마쯤 꺾어 들어가면 직립한 큰 바위가 있고 그러 크지 않은 석굴이 있어, 속칭 假檀君窟이라 하는데 그 유래는 이리하다. 옛날 平安監司나 寧邊府使가 到任을 하면, 依例 體面치레로 단군굴을 觀參하는 법인데 발과 손으로 기어올라도 위험한 길을 藍輿를 탐시고 行次하는 바람에 죽어나는 이는 승려들이었다. 고지식하게 血汗을 흘리다가 못하여 가깝고 편한 거기를 단군굴이라 속여 拜禮를 시킨 까닭에 ‘假’자가 붙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 당시 監司 某某들의 刻字가 뚜렷이 남아있었다던가.”

평안감사나 영변부사가 단군굴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나, 승려들이 괴로움을 듣기 위해 이들을 기만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단군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기에 여기서는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Ⅲ. 북한의 단군설화 자료

최근 북한에서는 단군 관련 설화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단군 연구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우선 김정설의 『단군설화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285쪽)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43편의 단군설화가 수록되어 있다(<표 1> 참조).

<표 1>

	분류	제목	소제목	내용	성격
1	단군신화	단군		『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 소개	
2		환인		환인이 우주를 만들고 만물을 자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게하는 등, 천지만물의 질서 창조	
3		환웅		환웅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규원사화』의 내용 소개	
4	민족의	무술터 홍산		단군이 즉위 전 강동군 단군릉 뒤의 구릉에서 무술 연습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 산이 별거승이가 되고 말았다.	지명 유래
5		청계골의 기린마		단군이 지혜로 기린마를 잡고, 단군릉 부근의 청계골에서 길렀다.	지명 관련
6	성지에	고비산 (高飛山)		단군은 기린마를 타고 고비산을 날아다녔고, 버들죽장이 기린마를 빼앗으려다 실패했다.	지명 유래
7	깃든	림경대에 찍힌 발자국		단군릉 부근 임경대 아래沼는 단군이 목욕하던 곳이며, 버들죽장과 마구죽장이 이를 염탐하러 왔다가 발각되었다.	지명 관련
8	전설	하늘의 후손		홀골죽장 아들이 누가 진정한 하늘의 후손인지를 가리기 위해 단군과 무술 시합을 벌였으나, 단군이 승리했다.	
9		바리산		단군과 성 쌓기 시합을 하던 마구죽장이	지형

			강동군 바리산에 올라 단군의 성이 먼저 완성된 것을 보고 놀라 미끄러지는 바람에 산에 미끄러진 자국이 생겼다.	설명
10	단군호		강동군 단군호는 단군이 배를 타고 사색하던 곳이며, 여기서 마구족을 깨칠 방안을 찾았다.	지명 유래
11	구빈리와 왕림고개		단군이 주변 집단 통합과정에서 마구족의 9귀족을 대접한 곳이 강동군 구빈리(九賓里), 마구족장이 단군에게 귀부하기 위해 돌아온 곳은 왕림(往臨)고개	지명 유래
12	룡교		강동군의 지명으로, 단군을 구한 용이 바위로 굳어진 곳	지명 유래
13	생일에 보낸 레물		홀골족이 걸으려는 단군의 즉위를 축하한다면 오�히려 트집 잡는 것을 단군이 포용함으로, 마침내 홀골족이 단군에게 흡수되었다.	
14	신지와 연지		미인계로서 단군의 박달죽을 흡수하려던 했던 신지족장이 오�히려 단군에게 감복하여 복속했다. 신지족장의 근거지는 성천군 룡산리의 신지성터.	지명 전설
15	군승령 (軍勝嶺)		단군이 돼지족장의 침입을 물리친 고개로 성천읍에 있다.	지명 유래
16	피물촌		단군이 성천군에서 룡족족장과 룡마를 죽여 흘린 피가 내를 이룬 곳이다.	지명 유래
17	개천일		단군이 10월 3일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맑은 아침'으로 정했다.	
18	안택골		성천군 안택골은 단군의 부인 연지가 단군을 10년간 기다린 곳이며, 부루골은 부루가 성장한 곳이고, 군자리는 부루가 태어난 곳	지명 유래
19	단군궁		금수산 모란봉 기슭에는 하늘이 지어준 단군의 3궁전, 즉 버들궁전, 천지장남지궁(天地長男之宮)·구계궁이 있었다.	
20	천지장남지궁(天地長男之宮)		풍패지역 사람들이 백두산에 산삼을 구하러 왔다가 단군의 천지장남지궁(평양 금수산 모란봉 중턱)을 보고 감탄 ³¹⁾	
21	기린굴과 조천석		단군은 기린굴에서 기린마를 길렀고, 조천석을 통해 하늘을 오르내렸다.	지명 전설

22		아달샘		단군이 남쪽지방을 순행하고 돌아오다 아달샘(강동)에 비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대비하여 유언을 만들	지명 전설	
23	단 군	부루	성황당	단군의 장자 부루가 곳곳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황당의 유래		
24			아 들 들 의	부루 단지	부루가 흉년을 대비해 종자를 보관하도록 한 것이 부루단지의 기원	
25	전 설	부소	부시돌	둘째아들 부소가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간편하게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시돌 발명		
26			부우	불사약	셋째 아들 부우가 썩을 비롯한 약제를 가지고 질병 치료	
27			부여	분유족 반란	넷째 아들 부여가 강비라는 충신의 희생 덕분에 분유족의 반란 진압	
28	단 군 신 하 들 의 전 설	신지	신지 글자	신지가 사냥을 나갔다가 시슴의 발자국을 보고 신지글자 창조		
29			팽우	천부왕인	팽우는 천부왕인이란 인장을 차고 다니면서 치산치수 담당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본받아 천부왕인을 차고 다니면서 불행 예방함	
30			치우	동두 철액	치우가 현원과의 싸움에서 승리	
31				싸움터 폐백	치우를 이길 수 없어 현원은 징발해둔 가축을 바침	
32				치우기	한 고조 유방이 치우기를 걸고 전쟁을 한 덕분에 황제가 되었다.	
33			전 설	고시	고시레	농경생활을 하게 해 준 고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먹을 때나 귀신에게 제사지낼 때, 음식물을 조금씩 떠서 던지는 것이 고시레 풍속의 유래
34	주인	증매			남매의 증매를 서주고, 증매 제도화	
35	해월	푸른 구리			청동으로 농기구 생산	
36	여수기	참성단			남쪽 바닷가 족장의 반란을 은혜를 베풀어 회유하고, 하늘의 덕을 받들어 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뜻을 보이기 위해 참성단 축조 ³²⁾	

37		비천생	상장 임명	한 때 단군에게 복속을 거부했던 우이족 족장의 아들로 단군에 포용되어 남쪽을 다스리는 상장에 임명됨 ³¹⁾	
38		잡벌레가 적은 단군릉		단군릉에는 환웅의 명령으로 잡벌레가 끼지 않으며, 단군릉에 꿀벌통을 놓았던 사람이 벌을 받았다.	
39	단 군 의	말묘		단군릉 동쪽의 말묘는 단군의 사후에 사라진 기린마의 굴레와 안장을 묻은 곳	
40		강동의 아달산		단군릉이 있는 아달산은 울음을 통해 나라의 위기를 미리 알린다.	
41	령 혼 전 설	평양의 승령전		평양의 단군사당인 승령전도 임진왜란을 미리 알렸다.	
42		구월산의 삼성사당		조선 성종 때 발생한 황해도 의 전염병은 단군 3대를 모시는 구월산 삼성사를 국가에서 제사하지 않은 탓	
43		단군화상		단군이 신라 솔거에게 화가로서의 재능을 주었고 단군릉 안의 단군화상도 솔거의 그림	

<표 1>에 의하면 『단군설화집』은 단군설화들을 ①<단군신화>(3편), ②<민족의 성지에 깃든 전설>(19편), ③<단군 아들들의 전

31) 김정설, 『단군설화집』 135쪽에서 천지장남지궁이란 이름은 『神異經』에 보이며, 『神異經』에서는 천지장남지궁이 東明山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은 천지장남지궁 설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神異經』 中荒經에 천지장남지궁이란 궁전은 나오지만(『增訂漢魏叢書』 4, 大化書局, 1988, 3307쪽), 동명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료 인용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揆園史話·青鶴集』, 아세아문화사, 1976, 168쪽. “檀氏之世 南夷之患 箕氏之世 有東胡之侵”

33) 金敎獻의 『神檀實記』 『神異徵驗』, 한뿌리, 1987, 193쪽에서는 『裴氏舊譜』를 인용하여 비천생에 대해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비천생은 단군이 남쪽으로 순시할 때 선녀가 바친 금 상자 속에서 태어났으며, 성장하여 상장이 되었다고 한다(檀君南巡海上 赤龍呈異祥 神女奉金奩 檀君開之 有緋衣童子 在焉 着緋衣故 姓緋 天以生之故 名天生 及長爲南海上長 『裴氏舊譜』).

설>(5편), ④<단군신화들의 전설>(10편). ⑤<단군의 령혼전설>(6편)로 나누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책의 설화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은 ②<민족의 성지에 깃든 전설>이다. 여기에는 <민족의 성지에 깃든 전설>이란 표제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명 관련 설화가 많다. 그리고 지명은 주로 평양·강동·성천지역의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단군의 일대기를 재구성할 수 있다. 즉 단군의 성장과 박달족 족장으로서의 활약 및 조선의 건국, 나아가 단군의 최후까지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04년에 나온 조희승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사회과학출판사)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단군조선사를 개관한 것인데, 여기서는 단군조선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단군 관련 설화들을 제시하고 있다.³⁴⁾ 이 중에는 김정설의 『단군설화집』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단군설화를 내용이 아니라 강동·묘향산·구월산이란 전승 지역별로 나눈 것도 다르고, 무엇보다 새로운 설화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역	설화명	내용
1	강동	쌍계봉(雙鷄峰)	강동읍 뒤에 있으며, 두 마리의 닭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세상에 단군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 목청껏 울다가 굳어진 산줄기
2		고불바위	14대 고불왕이 지방을 순시하다 쉬어간 바위
3	묘향	천주석	단군이 활쏘기 연습을 하면서 과녁으로 삼았던 바위
4	향	동천굴	환웅이 하늘로 올라간 곳

34) 조희승,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 사회과학출판사, 2004, 6~26쪽.

5	산	삼선암(三仙菴)	단군 3대를 제사하기 위한 묘향산의 사당
6		보현사 황운각	단군(일명 아사달)을 안치한 전각
7	구월산	아사달(아사봉)	꼭대기에는 단군이 와서 놀았다는 단군성동이 있다.
8		단군대	단군이 무술을 연마하고 글을 익힌 곳으로 환웅이 찾아와 격려
9		거부기 바위	구월산 기슭인 안악군 한월리에 있는데, 단군을 태우고 다니던 거북이가 구월산 경치를 심취하여 바라보다가 그대로 굳어져 바위가 된 것이라 한다.
10		단군대와 말발자국바위	단군대는 사왕봉 꼭대기에 있는데, 단군이 룡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곳이며. 이곳의 백운대에는 단군이 벗어 놓은 신발이 굳어졌다는 바위가 있다.
11		장장평(莊莊坪)	안악군 룡산리에 있으며, 홍수로 말미암아 단군이 네 이들에게 천도 후보지를 고르게 하여 도읍한 곳
12		별학터바위 전설	안악군 월지리 저수지 안에 있으며, 환웅이 단군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 보낸 학이 굳어진 바위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단군전설이 일본열도에까지 퍼져있다고 했다. 즉 시나노지방(나가노현) 수와(諏訪)신사의 제사 대상인 <고오가 사부로(甲賀三郎)전설>과 부전(豊前) 일대의 가하루산(香春山) 히코야마(彦山)의 신 등원항웅(藤原恒雄)의 전설이 그것이라는 주장이다.³⁵⁾

북한에서 정리한 자료들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단군 관련 설화의 편수가 많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단군과 관련 깊은 평양과 구월산 지역의 설화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에 나온 김정설의 『평양전설』(사회과학출판사, 1990)과³⁶⁾ 1994년에 나온 석선영의 『구월산전설』(문학예술종합출판사)이 그것이다.³⁷⁾ 그러나 이들 자

35) 조희승,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 사회과학출판사, 2004, 26~31쪽. 등원항웅과 환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長野覺·朴成壽 編, 『韓國·檀君神話と英彦山開山傳承の謎』, 海鳥社, 1995.

36) 1996년에 한국문화사에서 영인본이 나왔다.

료에는 단군 관련 설화가 한 편도 없다.³⁸⁾ 더구나 『평양전설』의 저자 김정설은 『단군설화집』의 저자이기도 한데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단군설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 발견되어 채록된 셈이 된다.

또 설화의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단군설화집』에 수록된 여수기 설화를 보면, 참성단을 축조한 계기는 남쪽 바닷가 사람들의 반란이다.³⁹⁾ 원래 남쪽 바닷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단군에게 특산물을 바쳤다. 그러나 장강유역의 회화 사람들과 교역하면서 특산물을 빼돌리고 그것을 바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찾아온 단군의 구가(벼슬 이름) 여수기를 죽이려 했고, 마침내 반란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단군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여수기의 건의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의 평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한마음으로 살아가자는 뜻을 남쪽 사람들에게 보이자는 뜻에서 강화도에 참성단을 쌓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단군이 제천을 위해 참성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고려사』 지리지에서 이미 언급이 보인다.⁴⁰⁾ 또 단군 때 남이(南夷)의 환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여적(趙汝籍)의 『청학집(靑鶴集)』에 보인다. 그러나 두 기록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 이에 비해 『단군설화집』의 여수기 설화에서는 참성단 건립의 계기를 남쪽 바닷가 사람

37) 1995년에 한국문화사에서 영인본이 나왔다.

38) 석선영 편, 『구월산전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30쪽에 <정곡사의 새벽 종소리>라는 설화가 있는데, 이 중 주인공이 구월산 10경 중 ‘사왕토월’은 단군과 관련이 있다고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군설화로 보기는 어렵다.

39) 김정설, 『단군설화집』 241~248쪽.

40)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江華縣 ; 有摩利山[在府南. 山頂有塹星壇 世傳檀君祭天壇]

들의 반란에서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회화 사람들과의 교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에서 탐해서라고 하는 등, 역사기록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처럼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인 스토리 전개는 구전설화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루어진 단군설화의 정리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김일성은 1993년 12월에 그때까지 수집된 원고를 검토하기까지 했다고 한다.⁴¹⁾ 1993년이라면 북한에서 단군릉을 발굴한 때이다.⁴²⁾ 그리고 단군릉 발굴 이후,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지역에서 평양으로 바꾸어 비정했으며,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선양하면서 이른바 단군릉을 대규모로 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평양을 우리 문화의 중심지, 나아가 세계문화의 발상지의 하나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대동강문명'이라 했다.⁴³⁾

이러한 움직임에는 정치적 이유가 개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민족의식 강화를 통해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⁴⁴⁾ 그렇다고 할 때 단군설화가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단군 선양 작업과 무관한 것이 아니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까지 나서서 단군설화 정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1) 김정설, 『단군설화집을 내면서』, 『단군설화집』, 3쪽.

42) 북한 사회과학원 명의의 「단군릉발굴보고」(『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94)는 1993년 10월 2일자로 발표되었다.

43) 장우진, 『조선민족의 발상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대동강문화』(조선고고학전서23), 진인진, 2009.

44) 서영대, 「신화 이해의 역사적 변천 - 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정신문화연구』 2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27~56쪽.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단군설화를 모두 날조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단군설화의 상당수는 지명이나 지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구전설화에서 지명이나 지형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은 흔히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단군설화도 뼈대가 되는 구전설화는 원래 있었던 것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살을 너무 많이 붙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까지 단군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수집·정리한 단군설화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IV. 자료의 종합적 검토-맺음말에 대신하여-

이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단군 관련 구전설화들을 내용별로 분류·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약간의 해설을 붙여보았으며, 북한에서 정리한 단군설화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채록된 단군 관련 구전자료는 모두 12편이다(단 2-①과 4-①을 각각 한 편씩으로 계산하면 13편이다).

이들을 채록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평안도 3편, 황해도 3편, 함경도 1편, 경기·강화 4편, 경남 1편, 전남 1편이다. 따라서 단군에 관한 구전자료는 거의 전국에서 채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부 지역에 비해, 북부나 중부지역에서 채록된 편수가 더 많다. 평양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곳인 동시에 단군의 무덤이 있다고 전하는 곳이고, 평안도 묘향산은 단군이 태어난 곳, 황해도 구월산은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곳이며, 강화도에는 단군이 쌓은 참성단과 삼랑성이 있다. 따라서 단군에 관한 구전자료는 단군 관련 유적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군 관련 구전자료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단군의 출생에 관한 것이 1편, 부인에 관한 것이 2편, 단군의 치적이거나 한 일에 관한 것이 6편, 무덤에 관한 것이 1편, 사후에 관한 것이 2편, 자손에 관한 것이 1편이다. 이 중에는 스토리를 제대로 갖춘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 설화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3-②·③·④).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단군 관련 구전설화는, 비록 편수는 많지 않지만 내용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단군 관련 구전자료는 내용면에서 문헌자료와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 우선 모든 자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다. 문헌에서는 단군이 백성들에게 갓을 쓰게 했다는 사실만 전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자료 3-①에서는 백성들 간의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 쏜 화살이 신기하게도 늘 되돌아 왔기에 단군은 화살 하나만으로 무예 연습을 했다는 3-⑤의 묘향산의 천주석 전승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문헌에 비해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다. 자료 1-①에서 기자는 단군의 동생이고 여우의 자식이라 한 것이라든지, 자료 2-②에서 중국의 천자는 단군의 친형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또 3-⑤의 묘향산의 천주석 전승에서 문헌에 비해 단군을 더욱 신성한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군의 신성성 부각은 자주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적이다. 민중에게 친근한 사실들의 유래를 단군에서 찾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데, 예컨대 당산이란 단군을 모시는 곳이라고 한 5-②라든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단군과 관련지은 것(2-②·3-①~⑥·6-①) 등이 그것이다.

단군에 관한 구전자료들 가운데는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

다. 즉 자료 2-①에서는 단군의 부인으로 용녀 한 사람을 전하는데 비해, 2-②에서는 용녀와 용녀 두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상호 모순이라 할 수 없다. 즉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2-①에서는 용녀가 누락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군의 무덤이 평양에 있다는 4-①과 단군이 가평의 용추계곡에 죽었다는 2-②, 그리고 구월산 단군대에서 승천했다는 5-①은 서로 모순이 된다. 단군이 평범한 인간들처럼 죽고 말았다는 것과 승천했다는 것은, 단군의 비범성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군 인식의 변화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단군 인식의 변천과정을 보면, 단군의 역사성이 부각되면서 단군의 최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1000년 이상⁴⁵⁾ 고조선을 통치하다가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는 인식에서부터 평범한 인간들처럼 죽어 무덤에 묻혔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나아가 앞의 두 인식을 종합하여 단군의 무덤에는 유체는 없고 옷과 신발만이 묻혔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것은 단군 관련 문헌을 통해 도출된 결론인데, 이러한 결론은 구전자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구전자료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단군 관련 구전자료들을 살펴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왕에 알려진 문헌자료와의 관계이다. 문헌과의 관련성을 볼 때, 내용상 문헌자료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들이 있다. 강화도의 참성단과 삼랑성의 유래를 언급한 3-②·③·④가 그것이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45) 단군의 재수 연수를 『삼국유사』 권1 고조선조에서는 1500년, 1360년(공민왕 9)판 『제왕운기』 권下에서는 1038년이라 했다. 그런데 현재 널리 유통되고 있는 1417년(태종 17)판 『제왕운기』에서는 단군의 享國 연수를 1028년이라 했지만, 이것은 1038년의 오키이다. 고려판인 1360년판은 『한국학연구』 36, 한국학연구소, 1989에 誠巖學人의 해제와 함께 원문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차이를 보이지만, 문헌에 약간의 언급이 있는 것도 있다. 즉 환웅과 곰이 혼인했다는 1-①, 단군의 부인에 대한 2-①과 ②, 삿갓의 유래에 대한 3-①, 단군의 무덤에 대한 4-①, 구월산에서 신으로 화했다는 5-①, 천주석을 과녁삼아 무술 연습을 했다는 3-⑤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문헌과의 관련 정도에서는 이들 사이에도 편차가 크다. 예컨대 용추계곡과 관련된 2-②는 기왕에 알려진 단군전승과 너무나 차이가 커서 이어서 언급하는 ‘전혀 새로운 전승’이란 범주에 넣어도 문제는 없다. 아무튼 문헌과 약간이라도 겹치는 전승이 있는 반면, 전혀 새로운 전승도 있는데, 단군이 구월산에 칼과 갑옷을 감추어두었다는 3-⑥, 단군이 마을의 당산신이 되었다는 5-②, 단군의 아홉째 아들에 대한 6-①이 있다. 이중 5-②는 단군이 신격화되었다는 점에서는 5-①과 통하지만, 마을신으로 신앙되었다는 점에서는 5-①과 다르다.

결국 단군에 관한 구전자료에는 기왕에 문헌을 통해 알려진 것들도 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전자료와 문헌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될까? 현재 필자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구전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화자(話者)가 문헌적 지식에 기초하여 이를 설화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구전자료가 문헌자료의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는 없지만, 방증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단군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서 후대로 갈수록 단군에 관한 전승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다. 예컨대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1705년)에서는 단군의 치적으로 머리를 땅고 갓을 쓰게 했으며, 팽오(彭吳)라는 신하로 하여금 국내의 산천을 다스려 백성들의 거처를 안정시켰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조여적의 『청학집』에서는 단군이 구월산 당장리(唐莊里)로 도읍을 옮긴 것은 홍수 때문이라 했고, 단군의 아들인 부루는 중국과의 외교, 부여는 구이(九夷)의 하나인 알유(狹獮)의 반란 평정, 부우는 질병 치료에 큰 공을 세웠다고 했다. 또 이의백(李宜白; 1711~?)의 『오계일지집(梧溪日誌集)』에서는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서갑(非西甲) 여인을 구월산에서 만났다거나, 단군이 금린(金麟)이란 짐승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군의 후손에 대한 상세한 계보와 단군시대의 선가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 역시 이전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홍만중·조여적·이의백은 모두 선가(仙家) 계통의 인물이다. 따라서 단군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은 선가문헌에 풍부하다고 하겠다.⁴⁶⁾ 그렇다면 이러한 선가문헌의 전승의 내원(來源)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의 전승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의 구전설화들이 단군 인식의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고,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의의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단군 관련 구전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얻어진 몇 가지 생각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록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트린 것이나 없는지 염려스럽다. 또 이용한 설화 자료들 간의 편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린다. 다시 말해 이용한 자료들 가운데는 채록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채록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서 자료를 검토해야 하

46) 서영대, 『조선후기 仙家文獻에 보이는 한국 상고사 인식』, 『한민족연구』 2, 한민족학회, 2006, 1~26쪽.

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이렇듯 부족한 글이지만. 이나마 글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료를 제공해준 실학박물관의 김성환 부장과 인하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영준 군의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드린다.

※ 주제어 : 단군의 출생, 단군의 부인, 단군의 치적, 단군묘, 단군의 사후, 단군의 자손, 『단군설화집』

※ 투고일자 : 10.28 심사일자 : 11.03 게재확정일자 : 11.11

〈참고문헌〉

- 『三國遺事』, 민중서관, 1969.
- 『帝王韻紀』(『한국학연구』 36, 한국학연구소, 1989)
- 『高麗史』, 대학사, 1982.
- 『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문화사, 1964.
- 『高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70.
- 『揆園史話·靑鶴集』, 아세아문화사, 1976.
- 李宜白, 『梧溪日誌集』(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韓國道教와 道家思想』, 아세아문화사, 1991)
- 洪萬宗, 『東國歷代總目』(『洪萬宗全集』 上, 대학사, 1980)
- 雪巖 秋鵬, 『雪巖雜著』(『韓國佛教全書』 9, 동국대출판부, 1988)
- 柳琴 撰, 『箋註四家詩』, 翰南書林, 1917
- 『寧邊志』(『韓國近代邑誌』62, 平安道4, 한국인문과학원, 1991).
- 東方朔, 『神異經』(『增訂漢魏叢書』 4, 大化書局, 1988)
- 金教獻, 『神檀實記』, 한뿌리, 1987.
- 가평군지편찬위원회, 『가평군지』, 가평군, 1991.
- 金成煥,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 金成煥, 『日帝強占期 檀君陵修築運動』, 경인문화사, 2009.
- 김정설, 『평양전설』, 사회과학출판사, 1990.
- 김정설, 『단군설화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 서울대출판부, 1994.
- 서영대, 『신화 이해의 역사적 변천 - 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2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서영대, 『조선후기 仙家文獻에 보이는 한국 상고사 인식』, 『한민족연구』 2, 한민족학회, 2006.
- 석선영 撰, 『구월산전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성기열, 『한국구비문학대계』 1-7 경기도 강화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孫晉泰, 『朝鮮民譚集』, 郷土研究社, 東京, 1930(최인학 역, 『조선설화집』, 민

속원, 2009)

- 이영문, 『전라남도』, 『한국 지식묘유적 종합조사·연구』 II, 문화재청·서울대학교 박물관, 1999.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Ⅲ · 평안남도편 · 황해도편, 평민사, 1989.
- 장우진, 『조선민족의 발상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밀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조희승,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 사회과학출판사, 2004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전라남도 보성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崔常壽,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 玄鎮健, 『檀君聖蹟巡禮』, 藝文閣, 1948, (『國學研究』7, 국학연구소, 2002)
- 長野覺·朴成壽, 『韓國·檀君神話と英彦山開山傳承の謎』, 海鳥社, 1995.
- 佐佐木五郎, 『平壤附近の傳説と昔話』, 『旅と傳説』 14-9(通卷 165), 三元社, 東京, 1941.

<Abstract>

A Study of Oral Traditions on Tangun

Suh, Young-Dae

For the most parts of historical materials on Tangun are records. But there are also the other kind of materials such as oral traditions on Tangun. The collect of oral traditions on Tangun was began in 1920' and we can find 11 pieces of folk tales on Tangun until now.

I classify these folktales into 6 types raise the standards of stories, i.e. birth of Tangun, wives of Tangun, works of Tangun, tomb of Tangun, Tangun's afterlife, sons of Tangun. In spite of pieces of folktales are a little, I know the diversity of motifs of stories.

In the course of examine the oral traditions on Tangun, my concerns are concentrate to comparison of oral traditions with records on Tangun. So one of my conclusion is that oral traditions are more concrete, more national. Second, I think that records influenced to oral traditions on Tangun in many cases, but there are also opposite cases. If it is possible, we can understand emergence of new ideas in the history of ideas on Tangun. That is to say, oral traditions on Tangun were recorded, the fresh ideas on Tangun are appeared.

At last, I analyzed a book which collect folktales on Tangun by scholars of North Korea, 『Anthology of Folktales on Tangun』. But I conclude that we must careful when we use materials produced by North Korean.

※ Key Words : birth of Tangun, wives of Tangun, works of Tangun, tomb of Tangun, Tangun's afterlife, sons of Tangun, 『Anthology of Folktales on Tangun』